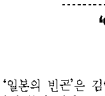
신 간 안 내

'한국인의 표준체격·표준체중치·체구성·체지방량과 체력에 관한 연구'

박순영 저



"1967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각급학교 학생(국민학생, 중·고교생, 대학생) 2만2천명을 무작위입출방법에 따라서 실시한 정부의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이 결과로 우리나라 중학생 입학시험 때문에 체격 발육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이 정부에 반영되어 중학교 무시험제도가 채택되었다고 본다"

지난 2월 학술원에서 펴낸 박순영(외대·의학)교수의 논문집 '한국인의 표준체격·표준체중치·체구성·체지방량과 체력에 관한 연구'는 의학분야 중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통계학을 이용, 평균적 한국인의 체격 변화를 기술하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선비는 갓을 벗지 않는다'

박이도 저

'생의 의미를 되돌아 보고 부끄러운 지난날을 각성하여 새로이 청사진을 그려보는 일 그 자체가 인간만이 가진 소박한 꿈인 것 같아 호뭇하다.'

현재 우리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이도 시인의 첫 수필집 '선비는…'은 계절을 맞고 보내는 감성의 시심과 사색적인 읽을 거리를 전달하고 있으며 지연에의 탐색과 세월 속에 묻히는 인생의 관조가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다.

서정시만을 고집했던 박교수는 수많은 조직과 인위적인 질서로 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만의 청명하고도 진솔한 언어로 자연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곱 권의 시집에 이은 박교수의 이번 수필집은 시와 산문이 어우러져 있어 격각의 정서를 부담없이 독자가 읽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창작/4천8백원

'일본의 빈곤'

김영명 저

'일본의 빈곤'은 김영명 교수(한림대)가 지난 1992년 8월부터 1993년 8월까지 1년동안 일본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일본의 겉과 속, 허상과 실상, 풍요와 빈곤 그리고 그들의 경제와 문화를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쓴 책이다.

일본은 장점도 많은 나라이지만 단점도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이 장단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명한 진리에 대한 망각은 우리가 지닌 일본관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던진다.

김영명 교수는 "많은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평가가 지극히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잘못된 일본관을 극복하고 일본을 보다 객관적이고 대범하게 인식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미래사/5천5백원

'새내기 여성학'

헤디 위스 지음/장지연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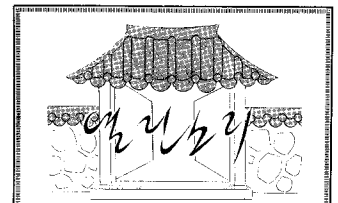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 헤디 위스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해방된 인간'이라고 표현한다.

성차별적인 문화, 역사, 제도와 개인의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글로 가득찬 이책은 70년대 독일어권에서 13-20세의 소녀, 젊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문제 입문서로 쓰여졌으며 93년 '연분홍 꽃따수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판 되었다가 94년 '새내기 여성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구성 됐다.

기존의 질서와 가치에 도전하고 새롭게 해석해 내는 힘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해방의 참 뜻이며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즉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으려면 개개인이 해방된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새내기 여성학'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이 선택과 자율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여성사/5천원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 : jang3

◇보냄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 joo3

학생운동 전면 탄압에 분노

UR를 둘러싼 정부·학생·재야의 공방속에서 최근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부쩍 증가했다. 정부는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남총련)에서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에서부터 집회시위까지 금지하였으며 남총련 학생운동의 지도부에 높은 현상금을 걸어 놓았고 이들을 체포하는 경찰에게는 1계급 진급부터 경위진급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그것뿐인가. 정부는 UR협상국회비준거부를 위한 학생들의 시위를 전면탄압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달 27일 83명, 지난 2일 우리학교 학생 1백여명, 5일에는 연와시위를 하는 2백여명의 학생들을 토끼몰이 식으로 강제 연행해갔다.

정부는 왜 이같은 학생운동 탄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공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정부도 궁지에 몰린 쥐의 꼴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각 일간지마다 "김영삼 대통령은 통북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와 관계된 농림수산부장관을 해임시켰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자신을 기만한 농림수산부장관을 가만히 놔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일국 원수의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니 말이다..그것뿐인가. 모든 책임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오려는 음직임. 김영삼 대통령은 일국의 원수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생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명령을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고작 이정도인가 의심해 본다.

4월12일 모르코 의정서가 채택되고 국회에서 수입개방에 대한 비준에 동의하면 우리의 존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최 은 호 〈회공·2〉

열림대

교수동정

이종원교수 방독

【서울캠퍼스】▲강성길(한의대·한의학)교수=5월9일부터 5월17일까지 한국의 한의학에 관해 발표차 초청연사로 불가리아 방문.

【수원캠퍼스】▲이종원(공과대학·기계)교수=4월22일부터 4월28일까지 학술발표차 독일방문 ▲황원국(공과대학·원자)교수=5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학술발표차 미국방문 ▲김명현(공과대학·원자)교수=5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학술발표차 미국방문 ▲텍영식(공과대학·토목)교수=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학술발표차 싱가폴방문 ▲김상국(체육과학대학·체육학과)교수=4월11일부터 27일까지 '94기계체조 개인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선수단장의 자격으로 호주 방문.

등 기

등기물 충무과로

【서울캠퍼스】▲황해석(영문·1) ▲김소연(영문·3) ▲박수열(생물) ▲권풍백(물리·4) ▲유재민(법학·1) ▲박한영(법학·2) ▲허제석(법학·3) ▲한상임(경제·3) ▲박준양(경영·2) ▲이민희(경영) ▲박효진(회계·2) ▲윤영호(회계·4) ▲조인성(영교·1) ▲김병미(미교) ▲류명주(미교·2) ▲학생회장(의대) ▲김은성(의학·1) ▲박진구(한의분·4) ▲김지연(한의분·4) ▲박성식(약학·1) ▲박길근(체육·4) ▲김숙경(무용·3) ▲하일용(삼의원523) ▲조기원(삼의원514) ▲이현미(삼의원209) ▲정태현(삼의원410) ▲김영길(삼의원503) ▲이우정(삼의원221) ▲김지환(삼의원203)

【수원캠퍼스】▲한수정(사회) ▲이기영(우주) ▲노일성(우주·2) ▲임철진(건축·3) ▲배종희(전자) ▲김승범(전자·4) ▲권용회(건축·3) ▲장기원(기계)

분 실

습득자 편집실로

【수원캠퍼스】◇지갑=▲강광모(우주·4) 검은색, 학생회관내 ▲이영주(전산·1) 검은색 소르젠떼 ▲양주미(유전·1) 유전공학과 열람실, 4월4일 ▲이북기(전자·3) 공대열람실, 4월6일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김유진(지리·90) ▲오은영(화학·92) ▲이근재(경제·87) ◇주민등록증=김용풍 ◇사진=▲홍백사진 2매

【수원캠퍼스】◇학생증=▲장운경(영문·92) ▲고명우(농학·93) ▲심윤영(원예·91) ▲박순구(수학·90) ◇지갑=이규동(농학·89)

동문모임

경성고 동문회

【서울캠퍼스】▲배재·이화고=15일 오후 5시30분 교시탑앞

【수원캠퍼스】▲인헌고=15일 오후5시30분 외대 앞 ▲경성고=15일 오후5시30분 공대식당

취업안내

취업정보실로 문의

◇삼성중권=신입사원 10명, 경영·경제 전공자, 4월13일 까지 756-3475연락, 추천 ◇력키금성=신입사원 000명, 4월13일까지 787-1114연락. 공채 ◇(주)일양익스프레스=신입사원 0명, 4월14일까지 710-8134연락, 공채 ◇삼성기CATV방송센타=아나운서겸PD 0명, 여자(경험자 우대), 4월13일까지 779-8326 연락, 공채 ◇현대그룹=신입사원 000명, 인문, 이공, 사대 전공자, 4월15일까지 746-3232~3연락, 공채 ◇대웅릴리제약(주)=영업부문 00명, 4월20일까지 553-2461~4 연락, 공채 ◇부국증권(주)=관리영업 00명 경상 3법 1문 1전공, 4월13일까지 780-1010 연락, 추천 ◇범아석유(주)=신입사원 0명, 4월20일까지 587-9811~8 연락, 공채 ◇캐드랜드=투역총무 0명, 4월15일까지 557-4888연락, 공채 ◇단도기계(주)=신입사원 00명, 관련학과전공자, 4월20일까지 0343)50-6287 연락, 공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사무직 3명, 4월20일까지 369-7866 연락, 추천

朔風

지켜지지도, 지킬 수도 없는 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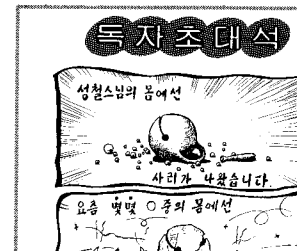
요즈음만큼 시사만화나 만평을 그리는 일이 괴롭 때가 있을까. 갑갑은 일들이 천지사방에서 벌어지기로야 지난 5·6공화국 시절도 이만하지 않았으랴마는 그래도 그 시절에는 서슬퍼런 공안당국이 존재하고 있어서 가리지 않고 막 그려대기에는 찜찜한 것이 있었을 터다. 그러니 요즘처럼 우습지도 않은 사건이 정치, 사회, 군대, 교육, 종교 기타 등등 전방위적으로 막 터져 나오는 데다 만화그리는 사람 잡아가는 곳도 없으니 얼마나 편하고 쉬우랴 싶다. 이건 도대체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이 오로지 냉정한 사회부 기자적 시각만 갖고 있으면, 기사가 곧 만화가 되어버리니 좀 편한가?

그 가운데에서도 달포전쯤 시내버스 기사들이 내걸었던 '준법투쟁'이라는 것에 비길 것이 있을까 싶다. 대개 상문고 사건이나, 기독교 일부의 살해사건 연루나 조계종 폭력사건 등속은 모두 '준법투쟁'의 그 회화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발단은 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의사가 엇갈리면서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 노조측에서 파업과 같은 극단적 방법을 버리고 택했다는 일종의 '사보타지'가 준법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런데 참 우습다. 우선은 기사양반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니 법관들과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나 싶어서다. 하기는 어지간한 경찰과 국회의원들은 이미 닳이 상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시민의 발'로서 자기 소입도 바쁜 기사양반들이 나서야 하는 판인 모양인가 보다. 또 법을 집행해야 할 관료들 역시 '복지부동(伏地不動)'하거나 '복지안동(伏地眼動)'하시니 역시 교통법만은 기사양반들이 지켜나가도록 투쟁해서야 되는 모양이다. 아 그랬다. 사사건건 대통령께서 소잡을 칼로 개나 닭잡는데 휘두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이니 기사 양반들이 애국적 투쟁에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가 보다.

또하나는 '준법'이라는 말과 '투쟁'이라는 말이 한 단어로 결합하면서 빚어내는 우스꽝스러움이다. 이 나라는 연필형 '법치국가'인데 '법을 지키자'고 '투쟁'을 한다? 급기야 준법투쟁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계속하겠다는 투쟁본부의 성명 앞에서는 '참 재미난 나라에서 사는구나'하는 찬탄(?)이 터져나온다.

그렇다면 그간에는 도대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다시금 법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다.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일 정도라면 이건 법이 문제라고 할 밖에 없겠다. 법이 법다울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 다시말해 인간의 이기욕과 사회질서 사이의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하는 것인데 우리 법은 아주 이상적으로 최대한의 규제를 듬성듬성 설치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법의 틈새에 권력이 끼어들고 그 결과 어떤 때는 촘촘히 또 어떤 때는 느슨히 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이리저리 봐도 감옥에 갈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가 보다. 법을 만든 사람이 그 법에 얽혀 감옥으로 가면서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나는 억울하다" 또는 "관례다" 또는 "나만 그랬느냐"라고 뗏뗏이 외치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면서 지옥같은 도시 교통에 시달리는 버스 기사들은 "법을 지키려 투쟁을 한다". 아! 이보다 더한 만화가 어디 있을까. (三)



이 병 하 〈미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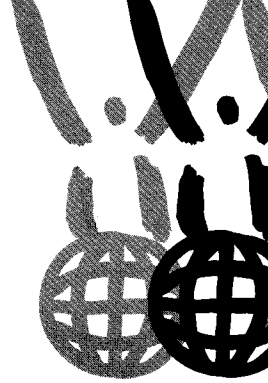
'94 대우 채용박람회

세계경영 우리기술- 대우

■채용박람회 일정 및 장소

지 역	일 정	장 소
부 산	4.11(월)~4.12(화)	부산대 강당
대 구	4.15(금)~4.16(토)	대우빌딩(대구역 앞)
전 주	4.19(화)~4.20(수)	전주 실내체육관
서 울	4.25(월)~4.28(목)	힐튼호텔 컨벤션 센타

*행사진행시간 : 09:00~17:00
*회사설명회시간 : 12:00~13:30
(부산지역에 한함)



대우와 함께 세계무대에서 당신의 꿈을 펼치십시오

'94년 대졸 신입사원 모집요강

1. 모집인원 및 모집부문

구분	모집인원	모 집 부 문
인문	600명	상경, 법정, 어문
이공	2,000명	기계, 조선, 금속, 전기, 전자, 건축, 토목, 산업, 화공, 전산

2. 응시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비 고
인턴사원	●'95.2월 졸업예정자	●'94.7월중 4주간 인턴실습 ●'94.8월중 최종합격자 확정
기졸업자	●'94.2월 이전 졸업자 ●'94.8월 중간예정자 ●'94.8월 이전 군면제 전 장교	●'94.6월중 입사확정 ●입사후 현장교육
공 통	●대학(대학원) 모집부문 해당학과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67.1.1.이후 출생자 (여자는 '70.1.1.이후 출생자) ●석사과정 이수자는 '65.1.1.이후 출생자	

3.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면접일정은 '94년 5월 20일(금)이후 개별 전보 통지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소정양식) ····· 1SET

나.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재학생은 현재까지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94.4.25(월)~4.28(목), 09 : 00 ~17 : 00

나. 교부 및 접수처

지역	교 부 및 접 수 처	전화번호
서울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타 :서울역앞 대우빌딩앞	080-023-2114
부산	대우중권(주) 범일동지점/부산상의회관앞	051)644-0077
대구	대우증권(주) 대구지점 :중앙로 아카데미극장앞	053)424-0311
광주	대우전자(주) 광주지사 :광주역앞 풍전당빌딩 2층	062)524-3301/3
전주	대우자동차판매(주) 전북본부 :노송 2동사랑구 새마을빌딩	0652/231-2251/3

☞ 우편접수처 : 100-714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번지
대우인력관리위원회

6. 기 타

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신체장애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우한다.

나. 우송지원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 도착분까지 접수합니다.

다. 문의처 : 대우인력관리위원회 ☎ 02-759-3526/7
천리안, 하이텔 (GO DAEWOO 후 공지사항 참조)

대우가족